

PEOPLE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한국사진기자협회장 선거

이호재 서울경제신문 부장 당선

이호재 서울경제신문 부장(사진)이 한국사진기자협회장에 올랐다.

사진기자협회는 이호재 부장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간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276표(65.71%)를 얻어제 47대 협회장에 당선됐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다.

이호재 신임 회장은 “회원들이 제게 주신 소중한 표를 무겁게 생각한다”며 “임기 동안 사진가들의 복지와 교육 강화를 위해 미국 미주리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 저널리즘 스쿨 연수와 광화문 거점 사진기자실을 신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시 복합재난 대응 합동훈련

기관 34개·단체 530여명 참여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8일 오후 남구 빗고을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대규모 복합재난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헬기 추락, 병원 건물 화재와 붕괴, 산불 확산, 고압가스 탱크 폭발, 전기자동차 화재까지 이어지는 연쇄적 재난상황을 가정해 재난 현장에서 각 기관의 대응능력 검증 및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이다.

참가 기관은 소방, 경찰, 군, 지자체, 의료기관 등 34개 기관·단체 530여명과 소방헬기와 협지펌프차 등 86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현장에서는 화재 진압과 붕괴현장 인명구조·구급 대응은 물론 건물 안전진단, 폭발사고 대응, 전기자동차 화재, 산불 진압 지휘체계 운영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이 종합적으로 전개됐다.

또 약 50명의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고, 부상자 분류·응급처치·이송까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현장 응급의료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실제 재난에 대비한 종합적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농협 장성군지부·고향생각주부모임

취약계층 밀반찬 나눔 봉사

농협 장성군지부가 고향생각주부모임 장성군연합회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밀반찬 나눔 봉사에 나섰다.

농협 장성군지부는 최근 장성군 가족행복센터에서 ‘행복나눔이 밀반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에는 조상길 농협 장성군지부장과 김한중 장성군수, 장영에 고향생각주부모임 장성군연합회장을 비롯해 고주모 회원 20여명이 참여했다. 고주모 회원들은 재료를 다듬고 조리해 묵, 장아찌, 맛간장 등 밀반찬 200인분을 정성껏 준비했다. 완성된 반찬은 취약계층 2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장성군지부는 장성쌀 200포를, 장성농협과 장성군도 식재료 등을 지원하며 ‘농심전심 운동’ 실천에 동참했다. ‘농심전심 운동’은 농업소득 증대와 농촌 활력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대, 스웨덴 첫 자매대학 체결...북유럽 ‘협력 거점’

유럽 최대규모 ‘EAIE 2025’서 22개국 49개 대학과 교류

신규 협정 체결 등 실질 협의...홍콩 자매대학과 교류도

전남대학교가 그간 교류협력의 공백지대였던 북유럽의 스웨덴 오레브로대학교(Orebro University)와 자매대학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성과는 아시아와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제 협력의 외연을 유럽 전역으로 확장하고, 북유럽을 새로운 거점으로 개척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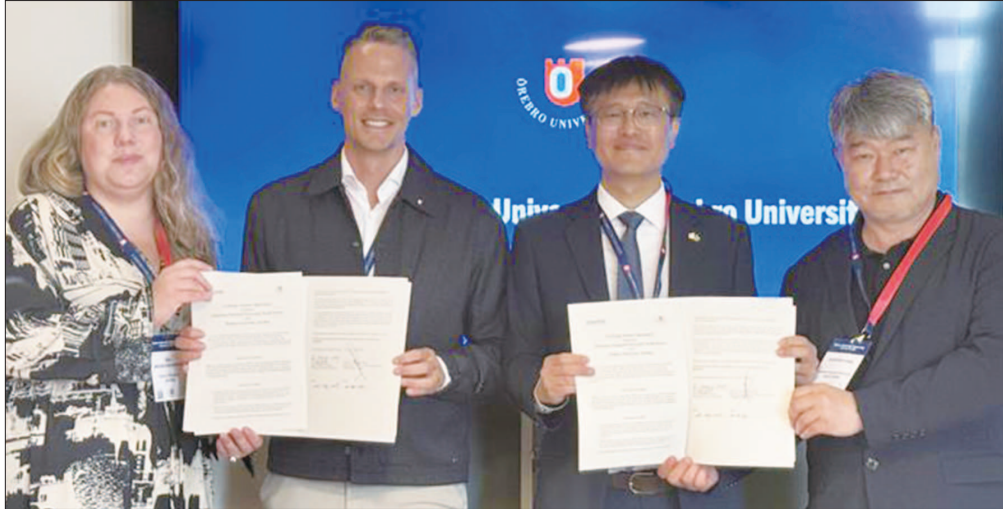
전남대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교류 행사 ‘EAIE 2025’에 참가해 22개국 49개 대학과 교류 미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대 대표단은 이번 행사에서 신규 협정 체결, 기존 파트너십 점검·강화,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 확장 등 실질적인 협의를 활발히 전개했다.

EAIE에는 100여 개국에서 7000명 이상의 국제교류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전남대에서는 조진형 대외협력처장, 강익혁 국제협력부처장, 강신혜 국제교류팀장, 최지연 주무관이 ‘Study in Korea’ 한국 대학 공동부스에 참여했다.

전남대 대표단은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대학과의 교류 미팅을 이어가며 △교원학생 파견·초청 확대 △복수학위 및 공동연구 협력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홍콩 자매대학 리쑤선, KAFSA 주관 한국 대학 간담회 등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에도 초청받아 교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교원학생 불균형 해소, 신규 파견 프로그램 확대, STEM 분야 공동연구, 장학제도



전남대학교가 북유럽의 스웨덴 오레브로대학교(Orebro University)와 자매대학 협정을 체결했다.

연계 등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조진형 대외협력처장은 “이번 EAIE를 통해 전남대는 북유럽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전략적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연구·교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글로벌 캠퍼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도, 저출생 극복 성과로 대통령 표창 수상

출생기본수당 등 맞춤형 정책 성과...합계출산율 전국 1위 유지

전남도가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출생 극복 분야 대상의 영예를 안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저출생 대응 정책이 전국적 성과로 인정받은 것이다.

전남도는 2024년 합계출산율 1.03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 2분기에도 1.04명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넘겼다. 전국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남도는 유일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도는 출생·양육 환경을 부모의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출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난임시술비 무제한 지원, 전국 최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임신·출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 같은 정책 효과로 2024년 전남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97명(5.1%)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0.06명(6.2%) 상승했다. 특히 결혼·출산 연령대(30~34세) 인구의 순유출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외부 요인에 의한 일시적 증가가 아닌 지역 거주자의 실제 출산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향후 10년이 출생을 반등의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이 있다”며 “전남도는 적극적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으로 출산율 상승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명 기자 hoibul@gwangnam.co.kr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 문화체험활동 ‘호응’

야구장 관람...지자체계 구축·정서적 안정 도모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은 최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문화체험활동은 자립준비청년의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우울감 해소를 위해 기획됐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스카이라이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팀과 선수를 응원하며 야구장 분위기를 만끽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은 “야구라는 공통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며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스카이라이프에서 야구 관람을 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 관계자는 “이번 문화체



험활동으로 공동된 취미를 가진 자립준비청년 간에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겪는 스트레스, 우울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구례군은 최근 실내체육관에서 구례군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만들어요”

구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구례군은 최근 실내체육관에서 구례군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구례’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행사에는 구례군수, 군의장, 도·군의원, 여성단체 회원, 각 읍·면 이장단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 프로그램은 여성단체별 입장식, 기념식, 유공자 표창, 공연, 화합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1부에서는 여성단체별 화려한 퍼포먼스 입장식과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기념사가 진행됐다. 이어 2부에서는 축하공연과 화합한마당,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의 ‘을지락 짝지락’ 프로그램, 자활센터 생산품 전시,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이어졌다.

김순호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군민 모두가 성별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꿈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교육

농협 전남본부는 17일 금정농협 회의실에서 캄보디아 국적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 조기적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입국한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이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캄보디아 출신 강사가 계절근로자 제도, 한국 문화 이해, 농작업 안내 등을 직접 강의했으며, 전남본부는 올해 총 13회의 조기적응 교육을 진행하며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스그무장화 △안전장갑 △농작업조끼 △자외선 차단모자 △작업용 우의 등으로 구성된 농작업 안전물품 꾸러미를 제공했다. 또 한국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무산 김 세트를 함께 전달하며 한국 문화와 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올해 입국한 캄보디아 출신 계절근로자는 총 17명으로, 영암군에서 선발돼 금정농협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근로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즉시 투입될 예정이며, 금정농협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도 준공해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동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제21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장 임택 동구청장) 가을 정기총회가 18일 안동시 국제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6년 가을 정기총회 개최지 선정, KH-CP 신규 공동정책 선포, 신규 회원도시 여수시에 인증제 전달,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담양군, 청렴 문화 확산 청렴정책추진단 회의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16일 청렴명예감사관과 함께 ‘2025년 청렴정책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정책추진단’은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각 읍·면 청렴명예감사관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고 실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담양군